

◆ Documents of "Chong" Family in Daemado.

對馬島宗家文書概觀

李 俊 杰

(國史編纂委員會圖書館)

一. 序

「外交는 內政이다」란 말이 있다. 國力이란 안으로 충실 하므로서 비로서 國威가 밖으로 빛나는 것이다. 國力이란 武力뿐 만 아니라 그 나라 國民이 가진 文化가 바로 國力인 것이다 政治, 經濟, 産業, 技術, 學術, 教育 等の 總合이 國力을 만드는 것이다.

外交文書中 日本과의 文化(諸般)交流가 어떠한가 등의 문제를 소상히 알아볼 수 있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本會 所藏의 對馬島宗家文書를 概觀하고 紹介하고 자 한다.

二. 對馬島 沿革

宗家文書의 理解를 돕기 위해 먼저 對馬島의 地勢, 建置沿革과 文書作成時의 社會的인 背景과 韓國과의 關係를 알아보고 자료의 종류, 내용, 가치성 및 오늘날까지 傳存되어온 소이와 入手경위를 要約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의 政理현황을 적어 보고자 한다.

對馬島는 그 名稱부터가 多樣하여 對馬州, 對馬國, 津島, 都志麻, 則什磨, 都之萬 등으로 일컬어 왔다.

位置는 韓半島 東南쪽 大韓해협에 위치하고 지형은 남북으로 길게 두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남부 섬의 둘레가 오십여리, 북부의 것이 백여리이다.

아세아 세 나라중에서 中國은 나이든 나라고 韓國은 중간치며 日本은 어려서 大陸文化가 日本으로 넘어갈 때 寄港地가 對馬島요, 韓半島는 그 橋樑역할을 담당했다.

古代 日本에 목축, 造船, 治水, 土木, 醸造의 기술이나 의학, 음악, 易歷 등과 또한 論語, 千字文의 漢字文化 그리고 佛敎 및 기타 모든 예술을 넘겨 주었다.

島府는 北쪽 섬에 두고 上下 二郡을 管掌하였으며 이 섬엔 山이 많다. 그리고 土質이 메말라서 植物재배가 마땅치 않아 生命線인 主穀을 韓國에 빌고 利를 바다에서 얻었으며 韓國과 交易을 가져 이로서 生業을 삼았다.

風俗은 固陋하고 未開하였으며 기후 또한 고루지 못

하였다.

上古時代에 島府를 下縣郡(嚴原)에 두고 鎌倉幕府時代에 小貳(職名) 武藤資賴로 하여금 두 섬의 政事를 管掌시켰다. 그러나 섬의 호족 阿比畜國信은 그 政令에 따르지 않았다.

高麗 高宗 33年(1246) 宗重尙이 國信을 征滅시키고 나중에는 地方의 우두머리가 되어 武藤에 屬했다.

高麗 元宗 14年(1273)元의 信入으로 重尙의 동생 助國은 元軍과 싸우다 戰死했으며 高麗 忠穆王 2年(1346)에 助國의 曾孫 經茂가 처음으로 對馬島 寄變에 補任되었다. 李朝 太祖3年(1394) 때 曾孫 貞茂는 上縣郡에서 살았으며 嘉吉3年(世宗25年 1443)에 그 아들(始祖로부터 7代) 宗貞盛이 처음으로 韓國과 貿易하였다. 貞盛과의 約條를 定하여 歲遣船數를 50艘로 限定하고 그 額數를 定했다.

李朝(1469) 때 그 孫子 貞國의 後 4世 將盛은 會石에서 統治하였다 그 뒤 5代를 傳하여 그 어린 義智가 嗣立하고서 豐臣秀吉에게 從屬하여 州守로 任命받고 田土 萬石을 下賜받았다. 關原의 戰爭時에 西軍에 가담하였으나 朝鮮聘事의 職位를 맡았으므로 遣責을 免하였으며 義智의 孫子 義眞이 棧原에서 統治하고 府中이라 改稱하였다. 王政革新에 이르러 府中을 다시 嚴原이라 바꾸고 縣으로 하다가 다시 이를 廢止하고 長崎縣에서 兼治하게 되었다.

三. 兩國間의 對外關係

對馬島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新羅時代(812)에 新羅船 2艘가 對馬島로 갔으나 言語不通이라 돌아갔고, 870年 對馬島人 乙屏麻呂가 갈매기를 잡기 위해 新羅境을 侵犯했으며, 新羅 奈勿王 44年에 倭寇가 新羅 金城을 包圍하고 버티다가 歸途 獨山에서 狹擊하여 全滅당했다는 記錄이 있다. (日本後記, 3代實錄, 東國通鑑) 倭寇의 本格的인 作亂이 시작된 것은 아무래도 賴朝 以來이며 莊園의 地頭數가 차츰 많아져 海內를 확보하고 이들의 勢力은 幕府의 政治圈밖으로 나와 自活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對馬島를 中心한 海域은 그들의 津洞 舞臺가 되었다.

따라서 高麗 高宗10年(1223) 會州(會海)에 入寇했고 同 12年에는 戰船10餘艘를 이끌고 侵入해 왔다.

高宗王은 나라의 安泰를 위하여 朴寅 등을 使者로 보내어 侵寇를 禁할 것을 請했다. 武蔭은 專斷으로 松浦의 侵寇에 亂動한 兵人을 朴寅의 面前에서 斬殺하고 以後에 다시 亂動치 않을 것을 決議했다.

이로부터 倭寇의 侵掠이 잠시 그쳤다가 다시 侵寇하므로 元麗聯合의 10萬大軍은 두차례나 對馬島를 攻略했으나 颱風風雨로 失敗하고 말았다.

그 후 李朝 宣祖 25年(1592) 豐臣은 日本의 60餘州를 平定하고 그 餘勢를 大陸으로 돌려 征韓策을 써왔다.

이와 같이 14世紀 中葉 宗氏が 對馬島의 守護가 될 때부터 高麗에서는 倭寇問題가 政治上의 問題로 되고 對馬島 方面의 海賊團이 沿岸에서 차츰 內陸各地로 侵犯하드니 얼마 後 京畿를 壓迫하고 王都 開城을 괴롭혔다. 그 結果 高麗(恭愍王)는 日本의 海賊을 禁制하는 일로 골치를 앓았으며 李朝로 접어들면서도 韓日關係는 한층 더 復雜해갔다.

이러한 利害갈등과 混亂한 狀況에서 兩國의 處地立場이며 事件의 發生, 制度의 案出 處理 등이 어떻게展開되는가는 對馬島文書(韓日外交 貿易關係, 古文書, 書契 圖繪, 地圖 等 豊富な 諸般資料로서 알 수 있다.

四. 資料內容 및 體制

對馬島宗家文書는 壬辰亂(1592)때로부터 1875年(高宗 12)까지 約 3百年間의 韓日關係의 資料이며 그 數量은 古記錄類 5,177冊, 書契類 10,670通, 文書類 39,830點, 地圖類 34點, 古畫類, 28點, 書籍 2卷으로 모두 55,741點이다.

古記錄類 5,177冊의 書目을 간추려보면 信使往復, 差倭, 漂民刷還, 倭館關係, 交隣, 書簡, 約條, 禁條, 裁判, 爭訟, 書契, 路引, 宴禮進上, 公貿易, 潛商, 開市, 贈給, 恤典, 雜犯, 鬱陵島關係, 圖書, 書札, 古書目錄 圖書分類, 書拔, 分類記事, 通文館志類聚, 藏經, 荒唐船, 譯官, 賞典, 船舶, 歲賜米, 奸女, 銅銀, 人蔘, 茶禮, 物品, 收稅, 倭情, 醫藥, 廳師, 理馬, 書僧, 燔陶軍牙兵, 唐兵亂, 城堞, 鐵炮, 烽火, 鎮營, 譜系課報, 卜筮, 民俗, 地理 等이다.

文書類 39,830通은 거의가 漢紙이고 크기는 一定치 않으며 낱장 자리와 여러帳으로綴한 것이 있다 도장의 捺印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文書의 種別目錄을 몇가지 적어보면 各種覺書, 和解, 各種目錄, 起請文, 大願, 各種證文, 各種明文, 家旨改人數, 券文, 番時, 奉寄進, 新類書, 不忘記, 借用書, 約束 等 社會經濟 對外政策面에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들이다.

書契類 10,670通이며 이는 渡航에 꼭 必要한 것으로 禮曹參判, 禮曹參議, 禮曹佐郎 또는 東萊府使, 釜山僉使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 속에는 贈呈하는 方物「進上」을 記入(1624년 이후는 「封進」이라 改稱)하고 別幅(別紙目錄)을 挿入했다.

國書는 여덟번을 접은 두터운 板紙(漢紙)로 되어 길이 77센치 폭이 52센치로 바깥 一面右邊에 奉書라 쓰고 左邊에 日本大君殿下라고 되어있고 가운데 접은 부분 下端에 朝鮮國王○○奉書라고 쓰여져 있다. 內面에도 같은 形式으로 朝鮮國王奉書와 日本國大君殿下로 되어있다(같은 國書는 이와 反對形式으로 記入되어 있다)

속에는 같은 모양의 別幅이 들어 進上 方物의 目錄이 記載되고 끝줄에 干支月日踏寶라 記入되어 있다.

書契도 形式은 같으나 末尾에 不備年號干支月日로 되어 있다. 稱號記入에 있어 太守 以上 執事 以下는 閣下로 對馬州鍾碧山 萬松院 以酌菴 以上은 足下로 記入되어 있다.

對外儀典關係 및 諸般文書의 署名捺印도 島主는 參議(局長級), 萬松院 以酌菴 護行長老는 佐郎(課長級)이 行하였다.

書契別幅에 記錄된 日本으로 부터의 進上物은 후추, 유황, 설탕, 염료, 입연지, 향료, 감초, 상아, 약초, 기린血, 水牛, 角等이고, 韓國에서 보내는 것은, 쌀, 콩, 꿀, 虎皮, 豹皮, 鬃, 비단, 공단, 모비단, 모시베, 무명베, 벼루, 조기, 꽃자리, 해삼, 전복, 호도, 참깨, 잣, 밤, 白蠟(밀), 白紙眞梳(참빗), 대추, 萊末(녹두가루)人蔘, 鷹(매), 黃筆, 眞墨, 犬, 虎肉, 虎膽, 魚皮, 참기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卷子本 및 繪圖 家康公初命和睦次第并信使來朝事(길이 6미터 폭33센치) 大閣秀吉朝鮮征討記本(길이 8미터 폭31센치 序頭에 朝鮮國王 李昞이 日本國王殿下에 보내는 國書(日本統一의 祝賀사연)가 있고 日本國關白 豐臣秀吉奉書로 朝鮮國王閣下에 보내는 글이 있다) 吾朝風俗於百餘州施文과 日本諸將征伐朝鮮渡海武卒 人數目錄(30萬5千人)이 있다. 또한 高麗陣中八道民戶服從 日本諸將所務收稅目錄(郡數 334, 米穀 1,192萬6,188石)과 進物目錄 등이 征討記本속에 記錄되어 있다.

御書物目錄(길이 5미터 폭19센치 40種의 書目이 收錄)

朝鮮信使來聘覺書(길이 5미터 폭 38센치) 香爐之氣(길이 3미터 폭 20센치)

柔氣目錄(習兵術文 1631年)

系譜(길이 11미터 폭 50센치 桓武天王(781)으로부터 義眞까지의 系線과 年號 및 朝日關係의 大事件들의 대 衆 줄거리를 記錄) 中 1444年 貞國은 朝鮮國과 歲遣 渡船을 相約했고 1452년에 朝鮮國船 2艘가 到對州하여 中 一般者는 吊貞盛之死 또 一般者는 成職家督을 祝賀했다는 등 그리고 貞國은 朝鮮使者를 厚待하고 對馬州에서 發付하는 路引渡航證明書)을 갖지 않은 者는 朝鮮에서는 받지 않았다.

盛弘(1910)은 義盛의 命에 군사를 이끌고 朝鮮으로 渡海하여 唐位城을 攻破하고 그후 熊川城下에서 구름 떼같이 모인 朝鮮兵은 盛弘兵을 太半이나 討死시켰으며 盛弘 亦是 31才로 戰死했다. 義調는 1590年 아들 義智와 九州에서 島津을 討伐하고 歸京하는 豊臣을 拜謁했으며 義智는 壬辰亂때 秀吉과 같이 바다를 건너 朝鮮 在陣 7年이며 秀吉이 죽은 後에 兵을 이끌고 歸朝했다.

秀吉의 亂入으로 朝鮮과 絶交된 것을 義智가 家康治世에 간청하여 修和가 好轉되었다.

朝鮮僧 惟政이 1600年 李朝宣祖40年(1607)朝鮮正使 呂祐吉, 副使 慶暹, 從事官이 丁好寬이 家康을 江戶에서 接見하고 厚待했다는 등의 記錄이 上記한 系譜에 있다)

朝鮮國繪圖(길이 1미터 50센치 폭 1미터)

朝鮮國城之繪圖(길이 13미터 폭 60센티 1596年作)

正使以下着服之圖(길이 3미터 50센티 폭 60센티 正使, 副使, 上上官, 上判事, 次上判事, 押物判事, 製述官, 書記, 醫員, 寫眞官, 畫員, 軍官, 着服來翰使者 등 13人의 着服 色彩畫)

李明彥筆蹟 風俗圖 등이다.

五. 規制設定

對馬島가 朝鮮의 屬州라는 根據(世祖實錄等)에서 1468年 朝鮮國政府에서 對馬島主 宗成職에게 判中樞院事 兼 對馬島州都節制使라는 官職을 주었다.

日本과의 緊縮政策의 樹立으로 受職人과 受圖書(도장의 同意語, 朝鮮으로부터 받은 것)歲遣船 等에게만 渡航權 및 在留權을 부여 했고 受職은 그 攻勞와 身分에 따라 官職의 輕重이 定해지고 司正으로부터 堂上官에 이르기까지의 階層이 있었다.

使船定數 또한 潛船渡來가 빈잡하고 寄着倭人들의 秩序가 紊亂하여 三浦制度和 路引制度 即使船商船도 指定港인 釜山浦(東萊浦) 齊浦(熊川浦) 鹽浦(蔚山浦)의 三浦에만 制限하고 對馬島主의 “사인”인 路引을 받아 密航與否를 가려냈다.

年例送使回數와 船數도 約定으로 大幅 억제하였다.

李朝時代 이후 年例送使라하여 第一船부터 第17船까지 送使船及 123 特送使船 및 副特送使船, 以 酌菴送船, 御兒名送使船이 있었다. 그러나 壬辰亂後부터는 年에 三艘으로 限定하고 年條送使船及 歲遣船 20艘에 不過했다.

1494년에 各浦에 居住하는 倭人戶口 및 人口數는 齊浦(熊川) 347戶 2500人 釜山浦(東萊) 127戶 453人 鹽浦(蔚山) 51戶 152人 計 525戶 3105人이다. (海東諸國記)

以上 보는 바와 같이 對馬島主 宗貞盛과 歲遣船을 約定한 것은 世宗25年(1443)부터이나 그때는 對日通交體制의 確立에 劃一的인 約定이었으나 차차 倭人의 偵探處化되어 通交體制的 本來目的에서 安保關係와 直結되는 壬亂을 불러 일으켰고 그後 送使關係를 統制함은 當然한 歸結인 것이다.

六. 整理現況

資料의 傳來來歷은 日帝 1926年 5月中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에서 朝鮮史의 編纂史料로서 그 當時 現金 2萬5圓60錢을 주고 元所藏者 對馬島主의 直系孫伯爵 宗武志로부터 5萬餘資料 全部를 購入하여 미처 整理에 着手하기도 前에 解放이 되었다.

그후 本會에서 引受하여 保管다가 1970年度부터 一部整理에 着手되었다.

蟲害 및 風化作用에 依하여 減損되어가는 資料를 우선 이를 防止해야겠기에 貴重한 古記錄類 5,177冊을 一次的으로 製本完了하고 分類目錄作成中이며 또한 書契 110,670通도 年度別分類를 끝내고, 目錄作成中에 있고, 文書類 39,830通도 原型을 保存키 爲하여 背裝作業을 하고있다. 一次5個年計劃을 樹立하여 整理가 進行中이나 아무래도 本格的인 事業은 充分한 豫算이 策定된 然後라야 되겠다.

七. 結語

이 資料는 韓日兩國에서는 얻지 못할 唯一의 貴重資料이며 韓國史의 一部를 占할 만큼 龐大하고 昭詳하여 政治 經濟 語般文化의 交流라든가 特히 民俗 海洋 自然에 이르기까지 記錄과 圖繪 等은 韓日間 研究에 있어 그 價値性은 높이 評價되고 있다.

現在 韓日兩國은 勿論 自由中國 美國 等地에서도 學界 研究機關에서 對馬島宗家文書類의 早速한 完全整理를 바라고 있으며 이 資料에 많은 好氣心을 가지고 있으며 館界는 물론 一般學界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